

방송단신

장애인과 사찰순례 BBS '꺼지지 않는...'

장애자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불교방송 '꺼지지 않는...'은 3월 5일 장애자들과 함께하는 사찰순례를 떠난다.

장애자들과 함께 떠나는 이번 사찰순례는 비장애인도 동참 환영하며 특히 장애인사찰사실분과 차량봉사하실분과 참여와 따뜻하게 맞아줄 스님을 기다리고 있다. (02)705-5245

운정광서 재 집필 BBS 고승열전

불교방송의 '고승열전'을 최고 인기프로로 구축한 운정광(동국출판사 대표)씨가 지난 13일부터 '진각국사' 편을 시작으로 고승열전 집필을 다시 맡았다.

8일 개국 축하 법회 불교방송 부산지국

불교방송 부산지국 개국 축하 기념법회가 지난 8일 오후 6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개국 기념행사 28일 리셉션, 1일교보식

불교텔레비전 개국축하리셉션이 오는 28일(화) 오후 6시 신라호텔2층 다이내스티홀에서 개최된다. 개국교보식은 내달 1일(수) 오전 10시 불교텔레비전 15층에서 봉행된다.

제1차 정기주주총회 3월 9일 향군회관

불교텔레비전에서는 3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불교텔레비전으로 공식명칭변경

불교텔레비전은 회사공식명칭이 외래어 표기법과 상이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공식명칭을 '불교텔레비전'에서 '불교텔레비전'으로 변경했다.

'일본속...'프로 제작 btv·조선일보 공동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는 조선일보사와 공동기획으로 '일본속의 한국문화'를 제작하여 MBC-TV에 3·1월 특집으로 '청소년 일본고대사 탐험'을 내보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달 6일부터 12일까지 일본지역에서 제작됐다.

신선한 영상 불거리 다채

국내외 불교 "클로즈업"

btv 개국특집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불교텔레비전이 예정대로 3월 1일 개국된다.

영상포교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이날 불교텔레비전은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3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지는 개국 특집 프로그램을 미리 본다.

◆달미가 서쪽으로간 까닭은(2-4일, 19시 40분~20시 30분) 1930년 하와이에 정법사로 파견된 진오스님이 사랑수수발에가 잡일을 해야했던 미국. 다중교 사회에서 하나의 실험장이었던 미국불교의 오늘 모습은 어떨까?

막연하게 생각해도 미국의 모습은 버려져있는 세계적인 사정, 불교화자 3천명, 불교는 문만도 2천여명에 이른다. 놀라운 장면으로 드러난다. 또 미국전역에 산재한 한국 불교 주요사찰과 불자, 석학과의 만남도 보여준다.

36일간의 촬영일지에서 34일 간 비행기를 타는 강행군을 거듭한 제작팀이 생생히 취재한 미국불교의 실태와 성과를 안방에서 함께할 수 있다. ◆일본속의 한국불교(2-4일, 오전 10시 10분~11시)

일본에 살아숨쉬는 한국불교의 숨결을 찾아 떠난다.

일본최초의 불상인 미륵반가사유상과 백제후손의 맥이 살아있는, 누워있는 비조사 대불이 따뜻하게 시청자를 맞이한다.

교토, 나라, 후지산, 대마도, 동경, 오사카 등지를 찾아 백제와 부여의 선조문화를 되짚어보는 다큐멘터리이다.

제1부에서는 한반도를 떠나 일본 비조문화를 쫓아온 1400년의 역사를 돌아보게하고, 2부에서는 도래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현재 남아있는 불상들과 전해진 문화문물을 하나 하나 소개해준다. 3부는 동대사를 중심으로한 일본불교의 역사와 실생활에 밀접한 일본불교의 실태모습을 보여준다.

◆백준준 비디오 쇼(1일 12시 10분~13시 10분) 부처님이 TV로 나누시는 모습을 한창준이 가법과 음악으로 처리하여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특급 비디오쇼이다.

세계적인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의 작품 'TV 부처님'은 일년전부터 불교텔레비전 개국



◆ 불교텔레비전의 개국특집 '일본속의 한국 불교' 제작장면.

축하를 위해 제작한 첨단영상의 꽃 비디오 쇼이다.

백남준씨가 비디오세계로 시청자들을 초대하여 대담을 나누며 축하와 기쁨을 함께한다.

◆한국사회와 불교의 역할(1-4일, 22시~22시 55분)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들이 총망라된 불교텔레비전 개국특집 4회연속 특별 좌담이 열린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이번 좌담에는 건강사회

를 위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환경보호를 위한 불교적 실천방안은 어떤 것인가, 종교개혁과 관련된 사후의 과업, 올바른가, 현대인 그들은 과연 행복하기라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한다.

◆불교2600년(2-4일, 13시 30분~14시 20분)

본소의 한별과 바라때 하나로 인도정역을 누비고 계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의 불자들이 찾아가는 구도열상기행 불교2600년은 부처님의 제자가 가득한 프로이다.

BC 563년 불교의 기원은 시작되고 남쪽으로는 스리랑카,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및 서역, 중국, 한국, 일본, 태국에까지 전파된 불교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자리잡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늦은산 깊은절(1일, 19시 20분~21시)

향공에서부터 푸른바다가 시원하게 들어오고 마니산에서 출발한 강화도의 모습이 천천히 클로즈업된다. 음악이 흐르고 폐허가된 고려궁터와 팔만대장경 관목장소인 선원사지가 보이며, 한강은 역사를 느끼게한다.

화면은 산등성이를 넘어 전 등사의 전경이 들어오고 개그맨 최영준씨가 아들에게 전통사의 역사와 얽힌 이야기를 간접하게 들려주어 전등사에 천천히 몰입한다. 3일간 경향의 헬기촬영으로 이루어진 '늦은산 깊은절'은 공중에서 사찰을 조망하여 평면적인 도량의 모습과 색다른 맛을 느끼게하는 항공촬영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주요사찰을 찾아가는 이 프로에는 개그맨 최영준씨(강화도지역), 탤런트 박순천씨(충청도지역), 가수 박선미씨(전라도 지역), 여행전문가 윤강영씨(강원도지역)가 출연한다. <김원우 기자>

英에 불자 자녀 위한 학교 문열어

브라이튼 지방...오계·반야 자비정신 등 교육

불자 자녀들이 다닐수 있는 학교가 영국 브라이튼에서 1994년 9월 13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교 축하 행사에는 달라이 라마의 사절을 비롯하여 FWBO(서구 불자회), 상좌파, 선불교 등의 불자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교실은 빅토리아풍의 테라스가 달린 건물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능한 1~2년

안에 학년 수 및 건물의 크기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사들은 수년간 불교 수행을 해 온 사람들이며 교과과정은 오계, 반야와 자비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규 교과 뿐만 아니라 명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학교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운영되므로 더 많은 후원자를 기대한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외통신

법화경 전7권 사경 카, 서광사 19일봉안

캐나다 밴쿠버 서광사에서 서광사의 원만한 불사 성취를 위하여 한암스님이 법화경 전7권의 사경을 마쳤고 오는 2월 19일에는 법화경 봉안 법요식을 봉행한다.

새 이사장에 정산스님 LA 불교방송

LA 불교방송 제6차 이사회가 지난 1월 21일 LA 금강사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1994년의 결산보고 및 새이사장선출을 안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새이사장에는 만장일치로 LA 수도사 주지 정산 스님이 선임되었다.

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남가주 불교발전은 화합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며 대중화합을 통하여 모두가 동참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국교성 불교비디오 교육 영국 서구불자회 제작

서구 불자회(Friend of Western Buddhist Order)의 비디오 제작 기관인 클리어 비전은 최근에 국민학생들을 위한 아십작을 완성했다. 바

로 국민학교에서 종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시리즈를 제작이 그것.

이번 기획은 종교 교육에서 비디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믿을 만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체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영국에 있는 6가지 주요 종교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당국의 계획에 따라 교실에서는 처음으로 불교가 도입될 예정이다.

인도 '산적여왕' 데뷔 개종 여성운동 앞장다짐

인도의 <산적여왕> 폴란 데비가 14일 힌두교의 카스트제도가 여성과 가난한 아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에 반발, 불교로 개종해 화제.

폴란 데비는 부자들 카스트 제도의 지배계급을 약탈, 살인, 유괴해 인도 하층민의 무상으로 존경받고 있다.

그녀는 81년 20명을 캄빈층으로 학살한 혐의로 11년을 복역했는데 교토소를 방문한 불교승려의 설득으로 이번엔 남편과 함께 개종. 데비는

'앞으로 여성을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싸우는 데 바치겠다'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보였다. <박미경 기자>

잇따른 격려... "시청률 고조 확신"

불교텔레비전 시험방송 반응 좋아

지난 1월 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55일간의 전승기와 프로그램 위주의 시험방송결과 대부분의 불자들은 방송기간동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텔레비전이 불교전승재널에 기반한 소재의 다양화를 추구할 경우 여타방송에 비해 높은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서울 방배동의 김홍호씨(42)는 "종교재널이라는 선입관을 떠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상

대적으로 호감이 간다"며 방송을 시청하다보니 다른 채널보다 내실이 있어서 좋았다"고 시청소감을 밝혔다.

이와관련, 불교텔레비전 관계자는 "시험방송시 불자들의 격려와 응원이 많았다"고 전체 한류 "자신감과 시험방송 노 하우로 불자들의 관심에 부응토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불자의 바른신앙을 선도하게될 불교텔레비전은 매일 오전 10시~15시, 오후 18시~23시까지 하루 10시간 매주 총 70시간 불교교리와 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해 된다.

btv 부산지사 후원회 창립 법회성료

회장 이윤근씨취임, 광주·대구등 곧 결성

불교텔레비전 부산지사후원회가 지난 10일 사장 태용스님, 태용스님이 운영위원 43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한편 불교텔레비전은 부산 후원회 결성에 이어 광주, 대구, 대전에 1차적으로 후원회를 빠른시일안에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지사 후원회 창립 법회에서는 불교텔레비전 부산

지사 후원회장에 이윤근씨가 취임하고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용스님이 운영위원 43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한편 불교텔레비전은 부산 후원회 결성에 이어 광주, 대구, 대전에 1차적으로 후원회를 빠른시일안에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지사 후원회 창립 법회에서는 불교텔레비전 부산

인력부



부산BBS '반야의 샘' 진행자 객연연 교수

매일 오후 4시 10분이면 어렵게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부산·경남지역 청취자들의 귀를 스며들고 앞으로 모으는 '반야의 샘' 진행자 객연연 교수(부산 동대대).

객교수는 불교문화재 소개, 불교행사 안내, 불교단체 탐방, 지역 곳곳에 얽힌 불교설화 등의 흥미롭고 재미난 내용으로도 여겨 나갈 것을 귀담한다.

"반야의 샘"에서는 지나치게 종교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지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불자들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공할 방침입니다"라고 진행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필>

"LA 교포중 불자 5·개신교 75%"

승려·목사는 30배 차이...대책시급

신상철씨 주장 해외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단차원의 계획적인 인재 양성, 제도적 지원, 외국어 교육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대불련총동맹회 신상철 사무국장이 지난 14일 청년여래회(회장 박진우) 주최 정기 법회에서 '해외불교의 오늘: 미주지역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한 것. 신상철씨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65년 서경보스님의 미주 진출과 72년 이한상거사의 주미 삼보사, 송산 행원스님의 나성 달마사 건립 이래, 미국 내에는 약 60개, L.A.교포에는 약 25개의 한국사찰이 생겨났지만 L.A.한인교회 수가 7백여개임을 감안할 때 한국불교의 미주 진출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로 세울 것인 소식이이다. 지난해 취재한 경기도에 있는 4차에 건일이 있다. 총무 스님과 얘기중 미칠 경기도청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문화재 과 의 공무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정화회관 철거유감

불교성지순례

<p><b>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b></p> <p>※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p> <p>·출발: 5월 13일(단1회) ·동참금: 140만원</p> <p>·일정: 서울-이슬라마바드-타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기바이)-타기바이-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p>	<p><b>인도·스리랑카 15일</b></p> <p>·출발: 3월 7일 ·동참금: 215만원</p> <p>·일정: 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롬비나-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키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푸와-덤블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p>	<p><b>스리랑카 6일</b></p> <p>·출발: 3월 10일, 24일 ·동참금: 108만원</p> <p>·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푸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블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p>
<p><b>티벳·네팔 10일</b></p> <p>·출발: 4월 8일 ·동참금: 230만원</p> <p>·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p>	<p><b>인도·네팔·태국 11일</b></p> <p>·출발: 3월 2일 ·동참금: 165만원</p> <p>·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위성-롬비나-카트만두(보드트·스 와이엠부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p>	<p><b>인도네시아 5일</b></p> <p>·출발: 3월 19일 ·동참금: 85만원</p> <p>·일정: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p>
<p><b>미얀마·태국 7일</b></p> <p>·출발: 3월 6, 20일 ·동참금: 135만원</p> <p>·일정: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페구-양곤-방콕-서울</p>	<p><b>대만 5일</b></p> <p>·출발: 3월 17일 ·동참금: 65만원</p> <p>·일정: 서울-타이페이-고공-화련-타이페이-서울</p> <p>■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수중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p>	<p><b>국외여행업 제604호</b></p> <p>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대)</p>

